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문학에 나타난 여성 · 모성 · 조국애 양상 - 『조선문학』(1997~2006)을 중심으로

임옥규*

차례

1. 들어가며
2. ‘고난의 행군’ 극복 정신으로서의 젠더 전략화
3. 조국애 형성을 위한 모성담론
4. 민족성 표상으로서의 여성의 상징화
5. 나오며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북한 문학에서 시대와 민족, 젠더의 대상으로서 관찰되고 표현되는 여성의 정체성을 분석해 보았다. 지금까지 북한 여성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북한 여성 정책 분석을 중심으로 한 것과 『조선녀성』을 중심으로 한 문학 분석들, 북한 여성작가의 작품에 대한 연구로 대별된다. 본고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보다 좀 더 폭넓게 고찰할 수 있으며 최근의 북한문학 경향을 알 수 있는 대상으로 북한 작가동맹 월간지인 『조선문학』을 선정하여 ‘고난의 행군’ 이후 시기(1997~2006)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최근 10여 년 동안 북한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문학 속에서 ‘고난의 행군’ 이후의 현

* 아주대 국문학과 강사

실을 반영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문학에 표현된 여성상에는 조국애와 모성, 민족성이 맞물려 북한만의 특색을 나타내고 있다.

『조선문학』을 통해 살펴본 북한의 여성상은 ‘고난의 행군’ 극복정신으로서의 성 역할이 특징지어지는 젠더로서 전략화 되어 있고, 조국애 형성을 위한 모성담론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민족성 표상으로서 여성을 상징화한 작품도 많았다. 남북한은 민족의 의미를 다르게 다루고 있고 근대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북한 문학에 표현된 여성의 정체성을 살펴 보면 민족과 근대, 조국의 문제가 함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 내 사회 모순적인 원리의 병행과 유지에 대해서는 북한의 가부장제적 사회주의 특성으로 설명되는데 여기에는 여성의 희생과 헌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한편으로 2000년 이후에는 미세한 변화가 생겨 북한문학에 있어서도 새로운 작가들이 등장하고 새로운 작품들이 대거 발표되고 있다. 북한 사회의 변화와 동반하여 북한문학 속 여성상도 변모하여 전체주의가 아닌 개인주의적 면모도 보였고 전체적으로 여성의 사회적 위상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여성을 주제로 하거나 여성적 글쓰기를 보이는 글들을 통해 남한에 잘 알려지지 않은 작가와 작품을 발견할 수 있었다.

북한문학에 표현된 젠더 전략화나 모성이데올로기와 여성의 상징화에 대한 분석은 새롭게 변모되는 북한 체제와 이념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유효한 방법으로 여겨진다.

핵심어 : 고난의 행군, 『조선문학』, 북한 여성, 모성이데올로기, 조국애, 젠더, 민족성

1. 들어가며

최근 남북은 상호발전과 평화변영을 위한 ‘10·4 남북공동선언’에 합의하여 통일을 위한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 이러한 대전환의 국면으로 들어선 한반도 정세 속에서 북한에 대한 남한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남북의 사상과 체제, 사회, 문화의 이질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해 북한에 대한 소개가 남한에서도 다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가장 대중적으로 소개되는 것이 북한 문화인데 북한 문학 작품에 대한 영화화나 출판이 이루어지고 있고 북한과 연관된 영화나 드라마가 소개되고 있다. 북한 문화를 접했을 때 이질감으로 당혹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남한의 사고방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데올로기의 유지 방식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다. 최근 남한에 소개된 <디어평양>(양영희, 1998, 남한에 2005년 소개)과 <우리학교>(김명준, 2006)라는 영화는 제일조선인들의 조국애를 다루고 있다. 이러한 영화들을 통해 남북의 이질감을 해소하고 제일조선인들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다. 그러나 조국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과 그리움의 근원이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또한 남북한은 단일민족임을 주장하지만 각각 별도의 ‘민족’을 형성하고 있다¹⁾는 지적처럼 북한 체제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민족 정체성은 남한의 경우와 그 의미가 다르기에 이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남한과 북한이 서로 이해 불가능한 타자로 여기는 까닭은 남북한이 동일한 근대적 지층을 공유하면서, 그 출발점에서부터 해결하지 못한 근대적 딜레마에 아직도 속박되어 있는 데에 출발한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²⁾ 이러한 시각에서는 여성문제를 특징짓는 평등과 차이의 기획은 남북한 모두가 극복하지 못한 근대성의 모순 속에서부터 불가능한 것으로 제시되었다고 주장한다. 북한 내 사회모순적인 원리의 병행과 유지를 북한의 가부장제적 사회주의 특성으로 설명하면서 모성정책으로 인한 모성이데올로기의 문제점을 제기한 시각도 있다.³⁾ 냉전이 해체되고

1) 한국역사연구회 북한사학사연구반, 『북한의 역사만들기』, 푸른 역사, 2003, 16쪽.

2) 최영석, 『여성해방과 국가적 기획-북한 문학에서의 여성 재현』, 『현대문학의 연구』 23, 한국문학연구학회, 2004, 300쪽.

정치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모색되는 과정에서 여성문제는 전세계적으로 정치발전을 위한 사회과학의 화두가 되었지만 북한 여성 연구는 양적이나 질적으로 북한 연구 발전에 비해 초보적이라는 지적도 있다.⁴⁾ 지금까지 북한 여성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북한 여성 정책 분석을 중심으로 한 것과⁵⁾ 『조선녀성』(1946~2002)을 중심으로 한 문학 분석들이⁶⁾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북한의 여성에 관한 문제를 모성과 조국애라는 관점에서 분석하려 하고 있다.

본고는 지금까지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면서 연구대상을 북한 작가동맹 월간지인 『조선문학』(1997~2006)으로 한정하려고 한다. 『조선문학』 잡지는 1947년 10월에 『문화전선』이란 이름으로 창간되었다. 본고에서 주목하고 있는 1997년 이후에는 북한의 정세를 반영하는 작품들이 등장하면서 한편으로는 새로운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고난의 행군’을 극복하기 위한 ‘붉은 기 정신’과 ‘자력갱생’의 추동과 ‘수령선군문학’을 강조하고 있다.⁷⁾ 본고에서 『조선문학』이라는 잡지를 선택한 이유는 북한에

3) 이미경, 「북한의 모성이데올로기: 『조선녀성』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6집 1호,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5, 391쪽.

4) 박영자, 「북한의 민족주의와 여성: 민족주의 담론과 여성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45집 1호, 한국국제정치학회, 2005, 84쪽.

5) 김석향, 「“남녀평등”과 “여성의 권리”에 대한 북한당국의 공식담론 변화 -1950년 이전과 1979년 이후 『조선녀성』 기사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북한연구학회, 2006. 25~50쪽.

박영자, 위의 글.

최영석, 위의 글.

6) 이미경, 「북한의 모성이데올로기: 『조선녀성』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6집 1호,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5. 389~419쪽.

이상경, 「북한 여성 작가의 작품에 나타난 여성 정체성에 대한 연구」, 『여성문학연구』 17, 한국여성문학학회, 2007. 349~385쪽.

7) 이러한 점은 북한에서 발행되는 다른 잡지인 『문학신문』, 『청년문학』, 『조선어문』(『문학연구』 『어학연구』로의 분화), 『김대학보(어문편)』와 차별되는 점이라고 북한 연구학자들은 평가한다.

서 가장 오래 연재되어 왔고 북한 사회의 변화양상을 대변하고 있으며 작가와 작품 경향이 다양하기에 본고의 연구목적에 적합한 대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⁸⁾ 본고에서는 북한문화를 접할 때마다 생겼던 여성, 모성, 조국애의 관계에 대한 의문을 북한문학의 여성담론과 여성적 글 쓰기를 통해 풀어보도록 하겠다.

2. ‘고난의 행군’ 극복 정신으로서의 젠더 전략화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소련과 동유럽 사회의 사회주의 국가 붕괴와 북한의 자연적 재난으로 인해 ‘고난의 행군’ 시기에 접어들게 되고 이를 극복하면서 새로운 모색을 하게 된다. 북한은 총체적인 정치·경제적 난국과 함께 심각한 체제 위기를 ‘고난의 행군’이라고 명명한다. 고난의 행군이 1998년에 공식적으로 종료되고⁹⁾ 김정일이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면서 북한 사회와 문학 분야에서도 새로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문학예술부문에서 김정일은 고난의 행군 시기에 당이 요구하는 명작이 김일성 주석의 생전의 뜻이 담겨 있는 ‘붉은 기 정신’과 ‘고난의 행군 정신’, ‘내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는 당의 혁명적 인생관을 철저히 구현한 작품임을 지적한다. 그는 주체사상에 구현된 붉은 기 정신과 고난의 행군 정신에는 일심단결의 신념, 자력갱생, 백절불굴의 혁명적 의지가 담겨져 있으며, 혁명의 붉은 기를 변함없이 높이 들고 나아가는 것이 인민의 숭고한 의무이며 의리라고 강조한다. 또한 ‘총대로써’ 당을 받들

8) 논자가 속한 학술진흥재단 지원을 받고 있는 소규모연구회 모임인 ‘남북문학예술 연구회’에서는 『조선문학』을 연도별호(1997년~2006년) 분석하고 있다.

9) 북한에서 1995년부터 시작된 ‘고난의 행군’은 공식적으로는 98년에 마감된 것으로 공고된다.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강행군 앞으로!』, 『로동신문』, 1998. 2. 3.

고, 모든 부분, 모든 단위에서 ‘혁명적 군인정신’을 적극 따라 배울 것을 역설한다.¹⁰⁾ 이 시기 문학은 현재의 총체적 난국을 극복하고 강성대국에 대한 전망을 제시한다.

북한 사회에서는 1998년에 쏟아올린 ‘광명성 1호’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 이는 그 동안의 고난의 행군을 극복하고 강성대국으로 진입하였음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강성대국 실현을 위하여 1998년부터 강조되어 온 ‘강계정신’이 문학 속에도 실현되고 있다. 강계정신은¹¹⁾ 1998년 1월 16일부터 21일까지 김정일이 ‘자강도’(慈江道)를 방문한 뒤, 같은 해 2월 26일자 『노동신문』 사설에서 처음 제시한 용어이다.¹²⁾ 자강도는 북한이 김일성 사후 추진해 온 ‘고난의 행군’ 과정에서 가장 모범을 보인 지역으로, 강계정신은 자강도의 도청소재지이자 도를 대표하는 상징도시인 강계시와 이곳 주민들의 투쟁정신을 본받자는 뜻에서 붙여졌다. 이후 강계정신은 극심한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 체제를 유지하고,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요구하는 시대정신 겸 경제 희생의 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주요 내용은 ‘① 자기 영도자만을 굳게 믿고 받드는 수령 절대숭배의 정신 ② 영도자의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 투쟁하는 결사관철의 정신 ③ 자신의 힘을 믿고 자기 단위의 살림살이를 자체로 꾸려 나가는 자력갱생과 간고분투의 정신 ④ 사회주의 미래에 대한 신심과 희망을 잃지 않는 혁명적 낙관

10) 남원진, 『고난의 행군과 주체문학』, 남북문학예술연구회 발표문, 2007. 1쪽.

김정일, 『김일성동지의 청년운동사상과 령도업적을 빛내여 나가자-청년절 5돐에 즈음하여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중앙위원회 기관지 <청년전위>에 준 담화』 1996년 8월 24일, 『김정일 선집』 14,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225쪽, 김정일, 『혁명적 군인정신을 따라 배울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7년 3월 17일, 『김정일 선집』 14,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292쪽.

11) www.naver.com 백과사전 참고.

12) 연형묵이 자강도 당책임비서로 일하면서 중소형발전소 건설을 통한 전력난 해결 방법을 마련해 ‘강계정신’이라는 새로운 조어까지 만들어냈다고 한다.

주의 정신' 등이다. 북한에서는 이 강제정신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자강도 주민들이 초근목피(草根木皮)로 연명하며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를 제작 상영하고 있다. 또한 『노동신문』 사설을 통해 강제정신을 강조해 왔다. 2000년 신년 사설에서는 “우리는 자강도 사람들이 지닌 왕성한 일 욕심과 강한 생활력, 알뜰한 살림살이 기풍으로 당의 구상을 빛나는 현실로 전변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에는 무엇보다 여성의 희생과 봉사가 더욱 강조되었다. 여성 자신의 사회적 실현이나 참여의 문제가 전체주의 속에 종속되었다.

『조선문학』에는 백두산 3대 장군인 김일성, 김정숙, 김정일을 중심축으로 하는 수령형상문학의 범주에 속하는 작품들이 산재되어 있고, ‘고난의 행군’이라고 명명되는 총체적 난국을 극복하고자 하는 체제 결속과 수호의 목소리를 담은 작품이 대부분이다.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항일무장투쟁 시기의 혁명투사이면서 지도자를 양육했던 김일성의 어머니 강반석과 김정일의 생모인 김정숙 여사를 북한의 이상적인 여성상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여성들은 경제난으로 공식공급체계의 파행적인 운행 속에서도 전통적인 성역할과 사회활동의 참여와 당과 지도자의 교시와 정책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것이 요구되었다.¹³⁾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는 북한사회의 이상적인 인간형으로 주체사상교양으로부터 만들어지며 북한주민들 모두의 현실목표이다. 수령에 대한 충성과 효성을 제일 덕목으로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로 무장하였으며 집단을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을 내던질 수 있는 영웅이 유일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주체형의 공산주의자이다. 이런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는 주체사상의 지도적 원칙 중 하나인 사상개조 선행의 원칙에 근거해서 새로운 전형으로 제시되고 있다.¹⁴⁾

13) 이미경, 『이상적인 여성상을 통해서 본 북한의 여성정책: 『조선녀성』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중소연구』 통권 102호, 2004, 156쪽.

북한 여성들에게 과중한 역할부담을 합리화시키는 차원에서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여성들의 모범 인물은 김정숙으로 볼 수 있다. 평론 『백두산녀장군의 위인상에 대한 감동깊은 형상』(김복희, 『조선문학』, 1999, 9. 29~32쪽)에서는 김정숙을 다른 작품들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김정숙에 대한 미화작업은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북한여성에게 요구되는 위대한 모성의 기저에는 당과 국가에 충성을 다하고 조국애를 실현해야 한다는 이데올로기가 작용한다. 시대적 어려움이나 육체적 고난 속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정신력의 중심에는 늘 당이 있고 수령에 대한 은혜가 있고 조국에 대한 사랑이 바탕이 된다. 북한의 이상적인 여성상으로 강조된 김정숙은 고난의 상황인 일제시대와 6.25전쟁을 거치면서 모성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당과 수령을 위해 충성을 다했다. 북한에서 원하는 모성은 단순히 한 가정의 어머니가 아닌 공산주의적 인간을 양육하기 위해 여성 스스로 공산주의 도덕을 갖춘 인간으로서 당과 국가, 지도자에 충성을 다하고 집단의 이익을 위해 개인적인 것을 희생할 줄 알며 혁명과 건설투쟁에 앞장서야 하는 것이었다.¹⁵⁾

북한에서 강조하는 ‘붉은 기 정신’은 혁명적 군인정신으로 여기에도 여성의 역할 수행이 강조되어 있다.

조선의 3대장군들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존경하는 김정숙어머님 그리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붉은 기발아래 높이 올리신 백두의 충성, 혁명의 퇴성을 담고 있는 우리의 전투적인 단편소설문학은 총대에 비긴 혁명적군인 정신에 대한 주옥같은 형상으로 빛나고 있다. 붉은기문학, 총대의 문학을(……) 총대에 대한 사랑으로 일관된 우리 소설문학은 최근년간 단편소설

14)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역사비평사, 2000, 227~230쪽.

15) 이미경(2005), 앞의 책, 406쪽.

《녀전사의 길》(조근) 《봄노래》(박춘섭) 《생활의 수업》(박윤), 《별》(리정수), 《한 녀교원의 사랑》(석남진)과 같은 우수한 작품들로서 《조선문학》의 전조를 훌륭히 꾸리었다.¹⁶⁾

위에 소개된 작품들은 총대와 사랑의 철학을 잘 형상한 것으로 평가되며 여성들의 참된 사랑의 의미를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바라는 것에서 찾고 있다. 『조선문학』 1997년 12호에는 ‘김정숙 80돐 기념특집’이 나오며 『조선문학』 1999년 9호에는 백두산녀장군의 업적을 칭송하는 글모음¹⁷⁾이 나온다.

『첫녀성락하병들』(송병준, 1999, 9.)에서는 육체적 약점에도 불구하고 낙하에 성공하는 여성들의 모습이 그려진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백두산 여장군인 김정숙이 세심하고 자상하게 배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온다. 이는 선군시대 산물인 총대 가정의 시원을 백두산 3대장군으로 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유격대생활에서 누구보다 부담이 많은 것은 녀대원들인 것이다. 남자들

16) 김성우, 『붉은기 정신이 구현된 우리 소설문학』, 『조선문학』, 1997년 10호, 71쪽.

17) <위대한 공산주의 혁명투사 김정숙 동지 탄생 80돐 기념특집>, 『조선문학』, 1997년 12호, 13~47쪽.

『밝은 미소(단편소설)』(로종익), 『눈송이(시)』(차명숙), 『몸소 지으신 배낭(혁명설화)』(본사기자), 『김정숙어머님을 우러러(시)』(중국 김성옥), 『혁명의 어머니(정론)』(황성하), 『백두산의 녀장수』, 『아, 우리 어머니(서정서사시)』(양승근), 『회령에서(런속기행)』(최성진), 『김정숙 동지의 크나큰 온정속에 꽃피난 애국적상공인들의 참된 삶에 대한 감명깊은 화폭(평론)』(리 철), 『진달래를 안으셨네(시)』(김송남), 『나의 천만리(시)』 외 1편(김은숙), 『어머님과 미래(가사)』(전병석)

<백두산녀장군의 불멸의 업적은 만대에 길이 빛나리>, 『조선문학』, 1999년 9호, 7~32쪽.

『위대한 인간 -언제나 어머니의 뜻을 새기시고』, 『백두산녀장수전설-신기한 총알』, 『첫 녀성락하병들(단편소설)』(송병준), 『어머님의 미소(수필)』(류정옥), 『백두산녀장군의 위인상에 대한 감동깊은 형상(평론)』(김복희), 『영원한 초침소리(시)』(김선지)

과 똑같이 싸움을 하고 행군을 하면서도 휴식시간에는 군복을 입고 산나물을 뜯고 작식대일을 해야하는 참으로 잠시도 쉴새가 없는 녀대원들이다. 그런데 그런 녀대원들까지 꼭 비행기를 타고 적진 속에 들어가야 한단 말인가. (……) 《우리 녀대원들을 믿어주십시오. 전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녀대원들은 락하훈련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꼭 해낼것입니다.》(18쪽)

『추억』(조산호, 2001, 9.)은 김일성 수령의 회고담을 통해 김정숙에 대한 이야기를 소설화 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총대만이 조국을 광복하고 총대만이 조국과 인민을 보위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한 여교원에 대한 추억』(리경명, 2001, 9.)은 조국해방전쟁 시기 적기의 포격 속에서 수령님의 초상을 안전하게 모시고 장렬하게 희생되는 여교원의 이야기가 전개된다. 장기성의 『나의 시어머니』(장기성, 2003, 9.)에서는 46년도 당원인 시어머니를 따라 당원이 된 며느리 이야기가 나오며 『래일』(조상호, 2003, 12.)에서는 김정숙을 칭송한다.

『조선문학』에는 육체적 한계와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여성의 모습이 나온다. 『우리의 하늘』(조상호, 1997, 4.)에서는 수령의 추억 속에 등장하는 전사들의 위훈, 꽃다운 청춘을 바치는 여성영웅 김선옥이 나온다. 수령은 전쟁 때문에 비행사의 꿈이 좌절된 김선옥을 항공학교에 보내 비행사로 키우라고 하였다. 『방직공의 노래』(류정옥, 1997, 4.)는 부엌대기나 아이보개로 천대받던 여성이 아닌 신성한 노동자로서의 처녀들을 그리고 있다. 『형제봉의 새벽노을』(김성희, 1999, 3.)에서는 이상적인 결혼을 하였으나 사별한 ‘나’와 노처녀 사양공으로 공훈을 세운 ‘송순’의 이야기가 전개된다. 이들을 강하게 추동하는 것은 각자의 시어머니와 어머니이다. 이 소설에서는 어머니 조국을 위해서 한 몸을 바치겠다고 다짐하는 ‘나’의 결심으로 결말을 맺는다. 『룡산의 메아리』(김성희, 2001, 5.)에서는 고난의 행군 이후 돼지고기가 줄어든 상황에서 풀과 고

기를 바꾸라는 주제를 관철해 나가는 사양공 처녀들의 이야기가 나온다. 『사랑과 행복에 대한 문제와 녀성형상』(김영금(중국), 평론 2001, 7.)에서는 오늘날 조선여성의 행복을 가족과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에서 찾고 있다.

남녀의 사랑을 다룬 작품들에서도 여성의 역할과 가치관이 중시된다. 『다시 본 모습』(김혜영, 1999, 1.)에서는 육체적 아픔을 이겨내어 임무를 완성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지향점과 실현과정을 중시하는 결혼관이 나온다. 『겨울밤의 은하수』(방정강, 1997, 3.)는 유혼을 받드는 청춘들의 이야기를 서간체로 전개하고 있다. 의사 박성훈이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로 처녀 ‘오월’의 이름에 얽힌 사연, 국화 같고 산소 같은 오월의 활력으로 사랑에 빠지는 성훈의 이야기가 나온다. 『사랑의 메아리』(정영중, 1999, 7.)에서는 외모가 뛰어난 ‘최신혜’라는 여성이 전쟁 전후를 통해 각성하는 인물로 나온다. 화자인 ‘나’는 대학시험 감독으로 최신혜라는 여성을 만나고 그 여성이 팔을 잃은 것을 동정하여 추가시험 기회를 주려고 하였으나 단호하게 거절당한다. 최신혜는 자신의 사연을 이야기한다. 전쟁 전 도서관에서 일했던 최신혜는 뛰어난 미모로 이름을 떨친다. 이에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연구사 선생인 잘생긴 청년 ‘문구’의 조수가 된다. 그를 사모하게 된 후 전쟁이 터지고 신혜는 그가 의사로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간호사를 지원한다. 아무것도 모르던 신혜가 병사의 수술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죽어가는 문구의 가르침 덕이었다. 현재의 신혜는 외팔이가 되었지만 새로이 대학시험을 치른다.

《동문 사랑을 실험하는건 사랑이 아니라고 했는데… 아니요. 전쟁이라는 준엄한 환경이 그 리트머스 종이가 되어 동무를 시험했소. 동무가 진실로 조국을 사랑하는가 안하는가 그 사랑을 위해 자신을 깡그리 바치는가

자기보신의 여지를 남기는가... 그렇게 시대가 매 인간의 사랑을 실험하는 거요. 동무의 이야기가 그것이었지.》(66쪽)

『두 번째 불무지』(정철호, 1999, 1.)는 조국의 내일을 위해 희생하는 젊은이들의 사랑을 형상하고 있으며 『푸른 수첩』(한인준, 1999, 2.)은 사회주의 대가정 속에서 신념과 지향이 하나인 부부애를 그리고 있다. 『차번호 만-하나』(김창수, 2000, 10.)는 애정의 관계를 사상적 동지관계로 승화시킨 작품으로 청년돌격대의 술선수범과 동지애의 확인 과정이 나온다.

고난의 행군을 극복하는 여성상은 선군혁명의 일군으로서의 여성상으로 이어진다. 『밝은 웃음』(김명진, 2006, 3.)은 선군가정의 지향점을 제시했다고 평가받는다. 4번째 애를 임신한 여인이 주체적으로 가정과 직장에 충실한 여성상을 그리고 있다. 『버들꽃』(김정희, 『조선문학』 2006, 1.)에서도 선군가정 속에서 가정주부와 관리위원장 역할을 하는 여성의 모습이 나온다.

3. 조국애 형성을 위한 모성담론

여성을 주인공으로 하거나 여성문제를 주제로 다루고 있는 북한소설에는 모성과 조국애의 관계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나온다. 모성에 관한 김일성의 교시에 의하면 북한의 모성 이데올로기는 다른 사회와 마찬가지로 여성들에게 일방적인 희생, 봉사, 헌신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¹⁸⁾ 북한체제에서 여성은 “사회의 한 쪽 수레바퀴를 떠밀고 나가는 역군”으로서의 여성의 사회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이를 뒷받침하

18) 이미경(2005), 앞의 책, 289쪽.

는 법적 기반과 육아와 가사노동의 사회화를 위한 제도적 정치를 마련하여 사회활동과 가정생활의 병행을 지원하여 왔다.¹⁹⁾

북한사회 내의 모순적인 원리의 병행과 유지는 우선 북한의 가부장제적 사회주의체제의 특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 북한은 최고 지도자-수령-의 권위가 이데올로기, 법, 제도, 규범 등을 규정하는 유일 지배체제를 형성, 유지하기 위해 가부장제적 유교전통의 유산을 재생, 확대시켰다.²⁰⁾ 북한에서 재수용된 가부장제의 특징은 북한의 독특한 가족관에서 비롯된다. 북한은 사회주의적 가족개념으로서 대 가정이라는 용어를 통해 북한 사회 전체를 하나의 가족으로 지칭하고 아버이를 지도자 김일성으로 보는 가(家)의식을 구성하였다.²¹⁾

북한은 전통적인 충효 이데올로기를 지도자 및 국가에 대한 의무로 재해석하며, 아버지 수령에게 절대복종과 충효를 다하는 것이 자식된 도리이자 인민의 도리라고 여기고 가부장제에서 가장의 이미지를 국가의 수령과 가정의 남성에게 적용하여 수령은 아버지로서 모범적으로 자녀를 교육하고 아내로서 충실하게 공경해야 하는 것이다.²²⁾ 이것은 여성들에게 혁명화, 노동계급화 되면서도 성 역할을 강요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모순된 역할 수행은 북한정치체제의 특성에서 당연시된다 해도 북한 여성들이 이를 문제의식 없이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은 북한의 여성이데올로기에서 찾을 수 있다.²³⁾ 이러한 북한의 여성이데올로기는 『조선문학』에 실린 단편 소설들을 살펴보았을 때 조국애를 강조하는 이데올로기를 합리화시키는 기제와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19) 윤미량, 『북한의 여성정치』, 한울, 1991, 79~89쪽.

20) 조형, 「북한사회체제와 여성관」, 『민족과문화』, 한양대 민족학 연구소, 1992.

21) 박현선, 『현대북한사회와 가족』, 한울아카데미, 2003, 43쪽.

22) 이효재 외, 『새로 쓰는 여성과 한국사회』, 여성한국사회연구소 편, 사회문화연구소, 1999, 426~67쪽.

23) 이미경(2005), 앞의 책, 392쪽.

있다. 『형제봉의 새벽노을』(1999, 3.), 『모성의 권리』(1999, 9.), 『사랑의 메아리』(1999, 9.) 등에서 그려지는 여성의 모습은 여성 자신의 발전보다는 모성 수행의 차원, 조국의 일원으로서의 역할 수행 차원으로 그려진다.

북한 체제의 특징인 유일지배체제의 이론적 토대가 되고 있는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인민대중의 최고 뇌수이며 통일단결의 중심’이라는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혁명적 수령관과 정치적 생명을 매개로 아버지 수령과 어머니 당, 인민대중이 혈연적 관계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통일되어 있다는 이론을 중심으로 성립되어 있다.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기본적으로 생명의 이분법에서 출발한다. 사람들에게는 생명유기체로서 살며 행동하는 육체적 생명과 함께 사회적 존재로서 살며 활동하는 정치적 생명이 있는데 후자가 더 중요하고 이것은 영생하는 것으로 수령이 이 생명의 중심이 되며 수령부터 받는다. 즉 수령, 당, 대중은 정치적 생명체 안에서 ‘혈연적 관계’로 맺어지는 것으로 규정되고 대중에게는 ‘생명의 은인’인 ‘아버지 수령’에 대해 충성과 효성을 다할 것이 요구된다.²⁴⁾ 북한에서 요구되는 여성상은 모성 중심으로 희생과 봉사, 헌신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모성 이데올로기는 조국애를 강조하는 이데올로기 역할을 한다.

『향기』(현성하, 1999, 5.)에서는 조국의 사과 맛에 얽힌 일화가 전개된다. 재일동포인 ‘순이’는 북해도의 조그만 민족학교 교원으로서 중앙강습에 뽑혀 교육을 받고 ‘만경호’를 직접 가보게 된다. 배를 참관하고 선원식당에서 민족적 향취가 깃든 음식을 먹게 되었는데 그 중 빨간 사과에 탄성을 하게 된다. 순이는 자신이 가르친 학생들에게 조국의 사과 맛을 느끼게 하고 싶어 한다. 새학기에 순이는 스물두 명의 학생들에게

24) 이종석, 『주체사상의 사회역사원리』 주체사상총서 2, 사회과학출판사, 백산서당, 1989, 216~218쪽.

사과를 나눠주고 ‘조국의 사과 맛’이라는 글짓기 숙제를 내준다. 다음 날 학생들에게 글짓기를 시키던 중 ‘일립’이라는 학생이 다른 학생들의 사과찬미에 비해 “조국의 사과맛은 조국의 사과맛입니다”라는 짧은 글로 대신하자 이상하게 생각하고 집을 방문한다. 이후 일립 어머니가 재일동포 1세대 중 한 사람으로 겪었던 일화를 통해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반일 감정이 나타난다. 또한 재일동포들이 피난민도 이주민도 아니고 강제로 끌려온 사람들임을 설파한다.

우린 전쟁란리를 피해 조국을 떠나온 피난민이 아니다. 스스로 조국을 버리고온 이주민은 더욱 아니다. 왜놈들의 총칼 아래 피눈물을 쏟으며 강제로 끌려온 사람들이다. 오고싶어 오지 않은 땅, 살고싶어 살지 않는 사람들... 그래 그것이다. 바로 그것때문에 우리의 삶의 뿌리는 저가-어머니 조국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조국의 대지에 뿌리를 내린 사과와 향기가 영원하듯이 조국의 품- 아버이 수령님의 한품속에 뿌리를 둔 우리들의 피도 녀도 영원한 조국의 것이다.(57쪽)

『수학려행』(김선환, 1999, 5.)에서는 부모의 인연이 자식으로 이어지는 내용이 전개된다. 일본에 있는 조선대학교 졸업반인 ‘수정’은 졸업여행으로 조국에 와 있다. 대동강에서 만난 대학생과 꽃을 가꾸는 그의 아버지를 만나고 ‘돌’에 얽힌 아버지대의 사연을 확인하게 된다. 수정의 아버지와 대학생의 아버지가 친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수정이는 조국에 온 손님이 아니라 조선의 딸이어야 한다는 것을 깨우친다. 『모성의 권리』(김혜영, 1999, 7.)는 작곡사 ‘송예향’이 오래간만에 아들과 함께 미술관을 찾았다가 그 곳에서 <엄마품은 어디에>라는 제목의 그림을 보는 것에서 시작한다. 예향은 다음 날 중앙미술 창작사로 찾아가 작가를 만난다. 예향은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 자신은 버려진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잃어버려진 것임을 알게 된다. 어

린 시절 일본인의 양녀가 되었으나 불구가 되자 버림을 받았던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던 예향은 후에 고국의 품에서 현대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치료 받고 결혼하여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다. 자신이 버림받은 줄로만 알다가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장엄하고 아름다운 모성찬가 ‘어머니사랑’을 작곡한다.

2000년 이후 『조선문학』에서는 작품 속에서 모성을 주제로 다루면서 ‘어머님의 총대사랑’, ‘수령결사옹위정신’을 시대정신으로 강조하기도 한다. 2001년 12호에는 어머니를 주제로 다루는 작품들이 많이 나온다. 『어머님의 공훈메달』(시, 광명철) 『어머님 밝히신 그 새벽에』(시, 진동화) 『어머니들이 태어나다』(단편소설, 리영환), 『어찌하여 북쪽의 녀인들이...』(시, 림형미), 『어머니 심정』(단편소설, 박종상) 등이 그러하다. 『선군시대가 드리는 영생의 노래』(평론, 김철민, 2001. 12.)에서는 김정숙이 조국광복을 위해 헌신한 사랑을 모성애에 비유한 『어머니의 그 위엄 영원하리』(서사시, 리범수)를 예찬하고 있다.

또한, 고향과 조국과 어머니를 합일된 하나로 보는 경향은 여러 글에서 나타난다. 최희건의 평론에서는 동기춘의 시집 『인생과 조국』이 고향과 조국에 대한 사랑을 어머니에 대한 사랑으로 고찰하여 예술 형상적 사유능력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시인 동기춘은 사랑의 불을 안고사는 시인이다. 그가 안고사는 사랑의 불—그것은 인간과 생활, 향토와 조국에 대한 사랑의 열과 녀이다. (……) 이것은 구체적인 것에서 전체를 인식하고 부분과 전체를 유기적이며 통일적인 관계속에서 고찰하는 변증법적 사유, 어머니와 고향과 조국을 하나의 《사랑의 실체》로까지 감각하는 시인의 독특한 예술형상적사유능력을 보여준것이다. (……) 진정 시인에게 《사랑과 산천》을 준 바로 그 《사랑》이 고향이었다. 《없으면 내가 없고 지키면 내 삶이 있어 너를 위해 아낌 없이 피를 뿌릴》그 땅이 《나의 조국》이었다. (……) 고향과 조국에 대한

사랑의 불—사랑의 시정신을 가지자면 자기 수령의 조국과 인민에 대한 위대한 사랑의 정치신앙을 신념과 량심으로, 도덕과 생활로써 받아들이고 숭배하여야 하며 수령의 위대한 인간사랑의 사상과 뜻으로 사색하고 그 사상과 뜻을 그대로 닮아야만 한다.²⁵⁾

어머니에 관한 주제는 『공로메달』(김리돈, 2002, 6.), 『금강 내기바람—한 관리위원장의 이야기에서—』(김청수, 2002, 8.)에도 계속 나타나는 데 어머니의 의미를 조국의 한 부분인 고향과 대지로서 나타내고 있다. 『제비』(김혜성, 2002, 11.)에서는 자식과 남편을 추동하는 어머니의 이야기가 나온다.

4. 민족성 표상으로서의 여성의 상징화

『조선문학』에는 여성을 상징하는 꽃, 산, 저고리, 자연, 대지 등이 많이 등장한다. 여기에서 꽃은 혁명적 낭만성을 상징하고 있다. 북한문학은 사회주의 제도를 예찬하고 미래에 대한 낙관을 심어주기 위한 주제를 많이 다루고 있다. 여성을 꽃에 비유하여²⁶⁾ 여성을 주체형의 공산주의자이며 혁명투사이며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조선의 민족성을 대표하는 것으로 표현한다. 조선의 여성은 꽃처럼 곱고도 강하며 영원한 전사의 길을 걷는 존재로 그려진다. 정은옥은 『녀성의 노래』

25) 최희진, 『자기 생활의 세계, 시세계를 가진 시인들의 초상』, 『조선문학』, 1997년 1호, 63~67쪽.

26) 리복은, 『붉은 다리아』, 『조선문학』, 1997년 1호. 김남용, 『태양과 해바라기』, 『조선문학』, 1997년 11호. 송혜경, 『나리꽃』, 『조선문학』, 1997년 5호. 조상호, 『우리의 하늘』, 『조선문학』, 1997년. 4호. 장미현, 『흰 들국화』, 『조선문학』, 1997년, 4호. 『목화꽃』, 『조선문학』, 1997년 8호. 김정희, 『버들꽃』, 『조선문학』, 2006년 1호. 김형수, 『정향꽃』, 『조선문학』, 2006년 4호. 림병순, 『들국화 향기』, 『조선문학』, 2006년 11호.

(1997, 3.)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한다.

하여
 이 땅과 운명의 숨줄을 잇고
 적은 힘 다해
 아이들을 돌보고 가정을 돌보며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떠미는 그네들
 그 장한 모습들이
 조국의 시화원에 싱싱히 피여났으면
 더 바랄것 없으리라
 한송이 들국화같은 나의 노래도
 장군님 따르는 이 나라 녀성들
 그 아름다움의 메아리를 더해주는
 한가닥 고운 청으로 높이 울리리니
 한껏 푸르른 조국의 하늘아래
 더욱 빈발할 조국의 시화원에
 활짝 피어서 지지 않을
 아, 나의 들꽃, 나의 노래여!²⁷⁾

『짚레꽃 마을의 향기』(김원선, 1998. 6.)에서는 영예군인 아내의 희생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남을 위하는 깨끗한 마음과 희생성, 헌신성이 새로운 경지로 승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 여성의 모습을 온누리에 퍼지는 짚레꽃의 향기로 비유하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키워주시고 내세워주시는 우리 시대 청년들, 그들이 창조하는 인간미풍의 극치들, 그것이 오늘 내가 타고가는 급행열차칸에도 그대로 옮겨졌으니 우리 나라에는 무수한 봉심인들이 살고

27) 정은옥, 「내 바라는 것은...」, 『조선문학』, 1997년 3호, 65~66쪽.

있고 그들이 창조하는 시대의 미풍은 찢레꽃마을의 향기마냥 온 사회를 진한 향기로 꽉 채운다. (……) 정녕 봉심이는 이 세상 만복을 우리 민족의 가슴에 듬뿍 안겨주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을 그대로 활짝 꽃피울줄 아는 인간이다. 복을 안고 사는 인간의 풍모는 영예군인들에게는 정성의 샘이 되고 사회적으로는 공산주의미풍의 숨결이 되며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으로 된다. 이것은 곧 일심단결의 기초이고 우리 식 사회주의를 받드는 기반이 아니겠는가!(43쪽)

또한 조국이 준엄한 시련을 겪을 때 평범한 여성이 얼마나 숭고해질 수 있는가를 형상한다. 『나리꽃』(송혜경, 1997, 5.)에서는 ‘조국해방전쟁’ 시기 국토관리사업에 임한 한 여인의 고귀한 희생을 그리고 있다.²⁸⁾ 모성을 자연에 비유한 작품으로 『녀성은 다 어머니로 되는가』(정혜경, 2001, 5.)가 있다.

어머니를 자연에 비길진대 자식을 곳곳이 떠받들어 주는 대지이고 걸음 걸음 사랑을 부어 젖품에서부터 나라의 공민으로 키워주는 봄이고 여름이며 자식의 앞길에 한 생의 마음을 깔아 성공에로 이끌어주는 가을이라고 말할수 있지 않겠는가...²⁹⁾

또한 민족의 소원인 통일애의 염원을 간절히 그리고 있는 여성에 관한 시가 있다.³⁰⁾ 뜨거운 모성애를 지니고 평화와 행복을 상징하며 통일을 열망하고 염원하는 여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허나 어이하여 나는
꽃다운 녀성의 이름을

28) 송혜경, 『나리꽃』, 『조선문학』, 1997년 5호, 58~65쪽.

29) 정혜경, 『녀성은 다 어머니로 되는가』, 『조선문학』, 2001년 5호, 71쪽.

30) 럽형미, 『통일과 녀인』, 『조선문학』, 2003년 3호, 72~74쪽.

통일이란 고 말과 나란히 놓는 것인가
 어이하여 나는 이 땅의 평범한 녀인으로
 이토록 통일을 안고 속 태우는 것인가
 (……)

한 번 울어 본 그 기쁨을 잊을 수 없어
 사무치게 사무치게 더더욱 그리워
 나셨다. 유순한 검은 눈에 서리발 내뿜으며
 엄숙한 력사앞에 피 젖은 꽃잎들을 휘뿌리며
 나셨다 통일이여 네 앞에
 조선의 남아들과 나란히
 조선의 녀인들도 목숨걸고 나셨다.
 (……)

무엇을 지니고있어 이 나라 녀인들은
 이렇듯 하늘땅에 밝은 미소 뿌리며
 자그마한 몸매에 늘 수고를 걸머지고
 타고난 천성인 듯 소녀시절부터
 그렇듯 열렬하고 성실하던가
 (……)

그것은 사랑
 바치지 않고서는 견딜수 없는
 녀인들의 온몸에 타는 불길이여라
 너무도 사심없고 헌신적인 것이기에
 이 세상 그 무엇과도 견줄바 없는
 숭고하고 열렬한 신비의 힘

조국의 통일에 대한 염원과 더불어 조국의 미래의 모습을 여성의 모습에 투사시킨 작품도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선군시대 구형에 대한 낙관을 여성의 형상화 속에서 찾고자 하는 작품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들의 매력』(지인철, 2004, 5.)에서는 여성의 모습에서 조국

의 미래를 발견하면서 그런 여성을 사랑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서정적으로 그리고 있다.

벼꽃이 피기 시작한 들판우에 하늘의 별이라도 내려앉은듯 나비등불빛이 쉬임없이 깜박거렸다. 개구리울음소리가 요란스레 울려온다. 한뼘도 못되는 키에 푸른 눈알이 툭 볼거진 들의 가수들은 기운찬 물소리와 한데 어울려 장중한 들의 교향악을 연주하고 있다. 유난한 달빛이 무르녹아 내리는 들판의 밤은 제나름의 정서로 매혹적이다. 하지만 나에게서는 주위의 모든것이 허전하게만 느껴졌다.

문득 그 감정이 어느날 현아가 보이지 않던 들판에서 느끼던 그런 감정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아가 없는 들판은 막이 내린 무대처럼 쓸쓸하고 허전했었지... 그리고보면 현아는 이 풍요로운 들판과 얼마나 잘 어울리는 처녀인가.³¹⁾

『버들꽃』(김정희, 2006, 1.)에서는 꽃이라고 부르기에는 소박한 꽃이지만 자기자신을 모두 바쳐 사랑하는 고향땅에 선군시대의 붉은 새봄을 안아오는 주인공 ‘옥순’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들국화 향기』(림병순, 2006, 11.)에서는 신문 배달을 빼먹자 아들에게 온 동네 배달을 다시 시킨 신문 통신원 이준마가 예전 군대 시절 병실을 밝혔던 들국화꽃으로 상징되는 간호원 한금녀이며, 지금도 그때 실명한 영예군인을 남편으로 수발하며 산다는 이야기가 전개된다.

5. 나오며

‘고난의 행군’을 겪은 북한문학에도 2000년대에는 새로운 경향의 여

31) 지인철, 『들의 매력』, 『조선문학』, 2004년 5호, 59쪽.

성적 시각이 나타난다. 이전의 작품들에 나타나는 여성들의 사랑이 동지애와 조국애로 흘렀다면 점차 사랑과 사회적 지위, 진정한 행복과 미래를 고민하는 여성들의 모습이 새롭게 등장한다. 작품 속에서 여성의 사랑과 일에 관한 내용이 새롭게 조명된다. 『후사경』(정용중, 2001, 1.)에서는 처녀 발전소돌격대원의 의견반영과 그것으로 인한 문제점을 속죄작업으로 이어나간다는 이야기가 전개된다. 『한분조장의 수기』(변창률, 2001, 1.)에는 텔레비전과 신문에 소개되고 싶어서 농촌진출을 결정한 여성이 나온다. 『행복의 무게』(리리순, 2001, 3.)에서는 연구사였지만 연구에 지쳐 모든 것을 포기했던 ‘유경’이의 이야기가 전개된다. 같은 연구사인 남편은 쉽게 성공할 수 있는 아민법을 버리고 과학적으로 더욱 완성된 알콜법을 완성하려고 하였다. 남편의 의지를 확인한 유경도 연구에 매달리고 결국 부부는 공동으로 연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두 개의 박사메달을 받고 많은 인파의 환영을 받는다. 『생활의 격류』(김혜성, 2001, 4.)에서 어머니의 기대를 받았던 외딸인 ‘나’는 성실한 가정주부가 되어 있다. 남편과 함께 길주에 사는 친정어머니의 일흔 돌 잔치에 다녀오는 길에서 소금발전설에서 희생된 사람들의 사연을 듣고는 소금발전설장에 손풍금건설장으로 나가기로 결심한다. 『파란 머리수건』(김영희, 2001, 7.)은 두벌농사 주제로 당의 경직된 사고를 비판한 작품이다. 북한의 농업혁명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관료와 비료 문제를 비판하는 여성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따뜻한 꿈』(최련, 2002, 1.)은 한 여성 연구사의 꿈을 그리고 있는데 생경한 언어나 주제 표현이 없는 참신함과 서정성이 돋보인다. 『열쇠』(김혜성, 2004, 4.)는 가정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열어가는 한 여성의 내면적 갈등과 착하게 돌아온 남편을 받아들이지 못해 자책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 『탄광마을 처녀들의 속삭임』(시, 김운걸, 2003, 6.)은 처녀들의 맑고 깨끗한 심성을 잘 포착하고 있는 작품이다.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리희남, 2004.

5.)에서는 가정에서의 여성의 위상이 향상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작품 속에서 남편은 아내에게는 언제나 경어를 사용하고, 때때로 아내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밥을 짓거나 빨래를 한다. 『함께 가는 길』(공천영, 2001, 11.)에서는 여성과학자의 참된 인생을 그리고 있다. 『듣고 싶은 목소리』(변창률, 2006, 7.)에서는 농촌 여성들의 사소한 오해와 불신이 해결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본고는 『조선문학』을 통해 문학 속에 표현된 북한의 여성담론을 고찰하였다. 북한 문학에서 형상화된 여성상은 민족 또는 국가 공동체 담론에 의해 성 역할의 혁명화, 민족성 표상으로서의 상징화, 모성담론의 전략화로 나타났다.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북한은 강성대국론과 선군혁명론을 내세웠고 문학에서 표현되는 여성상도 이에 영향을 받았다.

본 연구대상에 나타난 북한 여성상은 ‘고난의 행군’ 극복정신으로서의 성 역할이 강조되어 젠더로서 전략화 되었다. 여기에는 문학 속에서 여성의 희생과 봉사가 더욱 강조되어 여성 자신의 사회적 실현이나 참여의 문제가 전체주의 속에 종속되었다. 여성들의 참된 사랑의 의미를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바라는 것에서 찾고 있었다. 또한 북한 문학에서는 조국에 형성을 위한 모성담론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북한 문학에 표현된 여성상은 모성 수행의 차원, 조국의 일원으로서의 역할 수행 차원으로 그려지고 있다. 민족성 표상으로서 여성을 상징화한 작품들은 주로 꽃, 자연에 여성을 빗대어 북한 여성의 모습을 이상화하려 하고 있다. 통일에 대한 염원, 고향에로의 회귀, 선군시대의 구원을 여성의 사랑과 헌신하는 모습에 투영시키고 있다.

이러한 여성상은 2000년도 이후에 미세한 변모양상을 보였다. 문학 속에 표현되는 여성이 조국이나 가정이 아닌 자신의 행복과 미래를 걱정하거나, 인간적인 삶에 대해 염원하는 내용도 새롭게 등장하였다. 무

엇보다 북한 사회의 변화와 동반하여 북한문학 속 여성상도 변모하여 전체주의가 아닌 개인주의적 면모도 보였고 전체적으로 여성의 사회적 위상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여성을 주제로 하거나 여성적 글쓰기를 보이는 글들을 통해 남한에 잘 알려지지 않은 작가와 작품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본고는 북한의 대표적인 월간지인 『조선문학』 10년 치를 분석하면서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 문학에 나타난 여성상과 모성, 조국애의 상관 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여기에서는 새로운 작가와 작품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북한 문학의 새로운 변화양상 등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은 북한의 여성상을 연구하면서 『조선여성』 잡지에 편중된 경향을 보였는데 『조선문학』이라는 매체를 통해 좀 더 폭넓은 접근을 할 수 있었다. 북한문학에서의 여성적 시각의 변화를 문학사적 지속과 변모과정 속에서 좀 더 주도면밀하게 조망할 것은 차후의 과제로 남긴다.

□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조선작가동맹중앙위원회, 『조선문학』,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7~2006.

2. 단행본

김재용, 『북한에서의 여성과 민족, 그리고 국가』, 『분단구조와 북한문학』, 소명, 2000.

박현선, 『현대북한사회와 가족』, 한올아카데미, 2003.

윤미량, 『북한의 여성정치』, 한울, 1991.

이효재 외, 『새로 쓰는 여성과 한국사회』, 여성한국사학회연구소 편, 사회문화연구소, 1999.

3. 논문

김석향, 『“남녀평등”과 “여성의 권리”에 대한 북한당국의 공식담론 변화-1950년 이전과 1979년 이후 『조선녀성』 기사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북한연구학회, 2006. 25~50쪽.

박영자, 『북한의 민족주의와 여성: 민족주의 담론과 여성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45집 1호, 한국국제정치학회, 2005. 83~106쪽.

박영자, 『북한의 여성 정치 “혁신적 노동자-혁명적 어머니”로의 재구성』, 『사회과학연구』,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5. 356~402쪽.

이미경, 『이상적인 여성상을 통해서 본 북한의 여성정책: 『조선녀성』의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중소연구』 통권 102호, 2004. 145~173쪽.

이미경, 『북한의 모성이데올로기: 『조선녀성』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6집 1호,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5. 389~419쪽.

이상경, 『북한 여성 작가의 작품에 나타난 여성 정체성에 대한 연구』, 『여성문학연구』 17, 한국여성문학학회, 2007. 349~385쪽.

최영석, 『여성 해방과 국가적 기획-북한 문학에서의 여성 재현』, 『현대문학의 연구』 23, 한국문학연구학회, 2004. 297~320쪽.

Abstract

The North Korea's women · maternity · patriotism aspects of
Joseon Munhak(1997 ~ 2006) from 'marching of tribulation'

Lim, Ok-kyu

This paper analyzed the era, the race, and identity of women which was observed and expressed as the object of the gender in the North Korean literature. When you look into the identity of women expressed in North Korean literature, you come to know it connotes the race, modern age and the fatherland. The maintenance of social contradictory principles is explained by characteristics of the patriarchal socialism. Women's sacrifice and devotion are in this explanation. Analysis about maternity and symbolism of women in North Korean literature is the efficient way to increase the understanding of North Korea's ideology and its system.

In this paper, the features of North Korea's women in the magazine, *Joseon Munhak*, is analyzed. While North Korea have suffered inside and out in recent 10 years, it is slowly changing. Also in literature the changes occur, new authors come out and new literary works are presented.

The features of North Korea's women in recent *Joseon Munhak* (1997~2006) is portrayed as a gender which characterized the role of women as overcoming spirit of 'marching of tribulation'. Women also have maternity to shape patriotism. At the same time there were many literatures that symbolized women as racial characteristics. Above all things, features of women in Korean literature changed with

the changes in society of North Korea, not as a totalitarianism but as a individualism. You can easily see that women's status in the society improved in general. Also you can find authors and literary works unknown in South Korea from the writings about women and the writings that are feminine.

Key words : marching of tribulation, *Joseon Munhak*, North Korea's women, maternity, patriotism, racial characteristics, gender strategy

■ 본 논문은 10월 15일 투고되어 11월 24일에 심사가 완료됨과 동시에 게재가 확정되었음.